

환상서사에 나타난 시각적 정신병리 구현 양상 연구

— TV 드라마 〈주군의 태양〉을 중심으로

김민영*

〈차례〉

1. 서론
2. 대척적으로 위치한 시각적 정신병리
 - 2.1. 봉합된 시선으로 인한 의식적 실명
 - 2.2. 비가시적 세계로 확장된 시선
3. 양립된 세계의 공존
 - 3.1. 탈근대적 자폐증에서 탈피
 - 3.2. 경계 너머의 세계와 조우
4. 결론

〈국문초록〉

최근 TV 드라마에서 환상서사가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특히 2010년 이후 ‘원혼-해원’ 서사를 주축으로 하는 귀신서사가 공포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새롭게 변주되기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로코믹호러’ TV 드라마 〈주군의 태양〉을 대상으로, 양립된 세계에서 대척적인 시각적 정신병리를 지닌 인물들이 그들의 위치가 변화됨에 따라 재구성된 욕망이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릴 적 납치 사건에 대한 증후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주중원은 일종의 ‘히스테리성 실명’ 상태이다. 그는 스스로 구축해놓은 ‘킹덤’이라는 세계 안에 누군가가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며 본인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간다. 반면에 비가시적 세계까지 확장된 시선을 지닌 태공실은 현실과 죽음의 경계에서 귀신과 소통한다. 그녀의 세계에는 무섭고 섬뜩한 귀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태공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서 배제된다.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태공실이 주증원의 몸에 접촉하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첫 만남’ 이후, 그녀가 밀폐되어 있던 그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결과 주증원은 ‘상치’로 남아 있는 차회주와 납치 사건을 마주하면서 자폐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고, 태공실은 귀신들의 하소연을 경청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즉 양립된 세계에 위치한 이들이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허문다. 연대·유대감이 퇴색하고 사라지는 시대적 믿음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분명해 보인다.

주제어: 귀신서사, 난독증, 시각적 정신병리, 환상서사, 환시, 〈주군의 태양〉

1. 서론

그간 문학, 게임, 영상 등에서 환상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비현실적인 특성 때문에 매력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그리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판타지, 공상, 망상, 몽상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는 ‘환상(幻想)’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¹⁾이라 정의되고, 문학비평용어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망들이 성취되는 장소이자 양식(예술)”²⁾을 가리킨다. 이 같은 환상에 대응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fantastic/fantastique’가 주로 사용되었고, 한자문화권에서는 대체로 ‘기이(奇異)함’으로 표현되는데 ‘기(奇)’는 환상적이고 놀라운 영역을 지칭하고 ‘이(異)’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을 말한다.³⁾ 이와 같이 환상은 초자연적이며 기괴한 가공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헛된 것, 부질없는 것, 현실에 소용되지 않는 것임을 함의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이나 잉여, 혹은 이단”⁴⁾으로 하향 평가되었다.

환상 문학에 대해 최초로 정의를 내린 토도로프는 환상을 초자연적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9.7. 검색).

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 1032-1033면.

3)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7~9면.

4)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5. 환상물』, 이론과실천, 2016, 7면.

고 초인간적이며 마술적인 경이로움과 등장인물을 현혹시키려는 기괴함 사이에 위치시키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규정된다고 밝힌다.⁵⁾ 그러나 장르론적으로 환상 문학을 규명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환상이 문학의 내재적 속성 중 일부라고 봄으로써, 결국 환상 문학 장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모순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빛이 바래게 된다. 로지 잭슨은 환상이 사회 전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함에 대한 ‘불가능함’, 실재에 대한 ‘비실재’, 명명될 수 없고 형태가 없는 것,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⁶⁾이라 한다. 그의 논의는 통시적 관점에서 전복된 현실을 꿈꾸는 환상의 기제가 변모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스린 흄은 환상 문학을 장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문학의 본질로 파악하며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는 문학이 미메시스와 환상, 이 두 가지 층동의 신물이며 환상이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적합한 요소라고 제시한다.⁷⁾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유연한 그의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문학 작품들에서 모방 요소와 환상 요소는 특색 있게 혼합되고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서구의 환상 문학 이론이 198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되고 1990년대는 아날로그적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변환이 되면서, 연재소설 『퇴마록』, TV 드라마 <M>, 영화 <은행나무 침대> 등과 같은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40여 년간 지속됐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이분법적 경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에 따라 환상적 요소들이 극적 재미를 위해 사용되는데 거부감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⁸⁾ 이상과 같은 복잡다단한 문화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환상서사의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5) 츠베탕 토도르프, 이기우 옮김, 『덧없는 행복: 루소론,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1996, 145-167면.

6)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2, 40면.

7) 캐스린 흄,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55-62면.

8)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앞의 책, 15-28면.

그 비현실성이나 불가해함이 텍스트의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⁹⁾라고 정리할 수 있다.

최근 TV 드라마에서 환상서사는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¹⁰⁾ 환상서사에 등장하는 외계인, 초능력자, 반인반수, 괴물 등 중에서 특히 귀신을 다루는 서사는 1977년 <전설의 고향>¹¹⁾을 필두로 하여 현재까지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¹²⁾ <전설의 고향>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죽은 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귀신이 되어 출현”¹³⁾하는 원혼서사를 중심으로 1970~80년대 유일하게 공포 장르를 담당했다. 이때의 귀신은 “소복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원한 맺힌 여자”¹⁴⁾로 등장 자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킨 존재로 인식되었다.

2010년 이후 ‘원혼·해원’서사를 주축으로 하더라도 공포물에 한정되지

- 9)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앞의 책, 15면.
- 10) 박노현은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TV 드라마에서 환상서사를 다룬 미니시리즈를 ‘인간(인간·초인간·반인간·비인간), 시간(시간여행·타임슬립·타임루프), 공간(현재·이계·외계)’의 화소로 나누어 1990년대 이후 환상물이 다양한 화소를 다루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노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환상성: 1990년대 이후의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앞의 책, 629-660면.)
- 11) <전설의 고향>은 KBS2에서 1977년 <마니산 효녀>를 시작으로 1989년까지 12년간 방송되다가 578회 <외장녀>를 마지막으로 종영된다. 1996년 여름 <전설의 고향>은 다시 제작되어 1999년까지 총 72편이 방영되었고, 2008년에는 <구미호>를 시작으로 8부작, 2009년에는 <혈귀> 등 10부작, 2010년에는 16부작 <구미호-여우누이뎐>이 방영되었다.
- 12) ‘귀(鬼)와 신(神)’을 아울러 칭하던 ‘귀신’은 현재는 ‘신’의 원뜻은 소멸 또는 축소되고 ‘귀’에 한정되어 쓰이고 있다. 특히 원귀는 도덕적인 불명예 또는 불명예로 인한 억울한 피살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 등의 이유로 죽은 귀신이다. 이들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승에 미련이 남아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산 자에게 나타나 신원(伸冤)을 하소연하거나 병귀(病鬼)로서 인간의 육체에 들어간다(조희용, 「귀신의 정체」,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36-37면). 귀신이 살아있는 자에게 어떠한 여파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귀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서사는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것이다.
- 13) 문선영, 「전설에서 공포로, 한국적 공포 드라마의 탄생」,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앞의 책, 383면.
- 14) 위의 글, 384면.

얇은 귀신 서사가 TV 드라마에 등장함에 따라¹⁵⁾ 귀신의 형상이 점차 변모했다. 이때의 귀신들은 <전설의 고향>에서처럼 풀어 헤친 긴 머리에 소복을 입은 채 공포스럽고 기괴하게 형상화된 귀신과는 사뭇 다르다. 대개 그들은 외양상 귀신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채 대체로 평상복이나 교복 등을 입으며, 살아있는 보통의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모습을 취한다. 이와 달리 <주군의 태양>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전설의 고향>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도식화된 귀신의 모습도 아니고 일상적인 모습도 아니다. 완벽한 특수분장과 CG를 통해 <주군의 태양>의 귀신들은 등장만으로도 오싹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¹⁶⁾ 2000년대 <전설의 고향>에서는 CG를 사용함으로써 이전의 획일적인 귀신의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공포효과를 부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주군의 태양>에서 특수분장은 구구절절한 귀신들의 사연을 담아

15)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 스페셜-무서운 놈과 귀신과 나>, 박연선 극본, 김홍수 연출, KBS2, 1부작, 2010.5.22.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홍정은·홍미란 극본, 부성철 연출, SBS, 16부작, 2010.8.11.~2010.9.30.

<드라마 스페셜-격정마세요, 귀신입니다>, 황다는 극본, 이은진 연출, KBS2, 1부작, 2012.7.15.
<아랑사또전>, 정윤정 극본, 김상호·정대운 연출, MBC, 20부작, 2012.8.15.~2012.10.18.

<후아유>, 문지영·반기리 극본, 조현탁 연출, tvN, 16부작, 2013.7.29.~2013.9.17.

<드라마 스페셜-기묘한 동거>, 이지효 극본, 이정섭 연출, KBS2, 1부작, 2013.08.21.

<주군의 태양>, 홍정은·홍미란 극본, 진혁 연출, SBS, 17부작, 2013.8.7.~2013.10.3.

<처용>, 홍승현 극본, 강철우 연출, OCN, 10부작, 2014.2.9.~2014.4.6.

<드라마 스페셜-귀신은 뭐하나>, 손세린 극본, 차영훈 연출, KBS2, 1부작, 2015.7.31.~2015.7.31.

<오 나의 귀신님>, 양희승·양서운 극본, 유제원 연출, tvN, 16부작, 2015.7.3.~2015.8.22.

<처용 2>, 홍승현·문지람·김용철 극본, 강철우 연출, OCN, 10부작, 2015.8.23.~2015.10.18.

<싸우자 귀신아>, 이대일 극본, 박준화 연출, tvN, 16부작, 2016.7.11.~2016.8.30.

16) 진혁 감독은 <주군의 태양> 언론시사회에서, 귀신을 표현하는데 특수분장이 70~80% 차지하며 “한국 귀신이 한스러운 사연이 있고 소복 입고 머리를 기르고 있어 아주 무섭다. 그래서 드라마 상으로는 무섭기보다는 깜짝 놀라게 하되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싶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최보란, 『주군의 태양, 오싹한 귀신비밀 “CG? 분장이 80%”』, 『스타뉴스』, 2013.8.5, <http://star.mt.co.kr/stview.php?no=2013080516451302924&type=3>, 2018.9.8.검색).

내기 위해 에피소드별로 최적화되어 CG보다 더 큰 비중으로 활용된다¹⁷⁾. 각양각색 귀신들의 사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반영한 특수분장 덕분에 귀신들은 무섭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귀엽게도 그려진다¹⁸⁾. 즉 이 작품은 귀신들이 품고 있는 한을 효과적으로 영상에 담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특수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귀신 이미지를 만들었다. 정리하자면 <주군의 태양>은 최초로 ‘로코믹호러’를 표방하며¹⁹⁾, 공포물의 장르적 특성과 함께 로맨틱코미디의 장르적 특성이 혼합되어²⁰⁾ 차별화된 귀신 서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²¹⁾.

이 글에서는 <주군의 태양>에서 시각적 정신병리를 겪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귀신을 본다는 것은 환시(visual hallucination, 幻視)인데 “다소라도 의식장애를 수반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²²⁾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시각적 정신병리의 일종

-
- 17) 조예원, 「공포영상의 특수분장 사례연구 -주군의 태양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0~90면.
 - 18) 정시우, 「step by staff(6) '주군의 태양' 특수분장사 김봉천, “진짜 같은 가짜를 향한 열정”, 『텐아시아』, 2013.10.8.(<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71816>, 2018.9.8.검색).
 - 19) “'주군의 태양'은 소지섭과 공효진이 귀신을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낼 대한민국 최초의 '로코믹호러' 장르의 드라마다.” (강선애, 「오늘 첫방 '주군의 태양', '너목들' 열풍 이를 관전 포인트 넷」, 『SBS E! 연예뉴스』, 2013.8.7. http://sbsfun.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4463960, 2018.9.8.검색).
 - 20) 이여진, 「TV 판타지 드라마의 장르혼합 양상 연구-〈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주군의 태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1) 각주 15번에서 언급한 작품들 모두 귀신을 볼 수 있고 귀신과 소통 가능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중 <후아유>와 <주군의 태양>은 주인공이 귀신이 아니다. 이 작품들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인물이 여자라는 점, 그녀들은 사고 후 귀신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 귀신들이 그녀들에게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다는 설정은 유사하다. 그런데 <후아유>에서 여자 주인공의 신분이 경찰이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초능력을 소유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한다.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귀신들은 경찰이 일련의 수사 과정을 거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범인을 잡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주군의 태양>에서 귀신들이 여자 주인공에게 요구하는 것은 범인을 검거하는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후아유>와 차이가 있다.
 - 22) 환시는 “시각영역에 나타나는 환각의 일종으로 외계에 실재하지 않는데, 물체, 도형,

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주군의 태양>에서는 환시 때문에 비가시적인 세계에 속하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인물과 정반대로 가시적 세계에서 일부를 보지 못하는 난독증을 겪고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난독증(dyslexia, 難讀症)은 우울증, 정신공황, 불안장애 등과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로²³⁾,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학습 장애”이며 “정확한 또는/동시에 유창한 단어인지의 어려움, 빈약한 철자, 해호화 능력의 문제” 등이 나타난다.²⁴⁾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태공실(공효진 분)과 상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능력 미달인 주중원(소지섭 분), 이 두 인물은 시각적 정신병리를 겪는 존재이다. 전통적으로 눈[目]이란 ‘사유와 떨어질 수 없는 신체감각으로, 근대적 사유·근대적 이성의 입장에서 눈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도구이다. 따라서 확장된 시선의 주체와 한정된 시선의 주체는 공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상이한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에 기대어 이 글에서는 TV 드라마 <주군의 태양>을 대상으로 하여, 양립된 세계에서 대척적인 시각적 정신병리를 지닌 인물들의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그들의 재구성된 욕망이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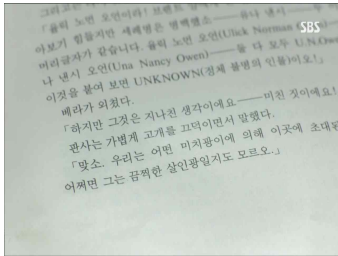
경치, 동물,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등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대한간호학회 편,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15413&cid=50362&categoryId=50362>, 2018.9.7. 검색).

- 23)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5%인 33만 명가량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윤영·이동현, 「〈난독증 집중취재〉 글자에 갇힌 아이들…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EBS 뉴스』, 2014.4.14,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210727/N>, 2018.9.7. 검색).
- 24) “About Dyslexia”,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2, <http://www.interdys.org>. (김용욱·우정환·신재한, 「난독증 연구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16권 2호,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5, 216면에서 재인용.)

2. 대척적으로 위치한 시각적 정신병리

2.1. 융합된 시선으로 인한 의식적 실명

<주군의 태양>은 과거 납치 사건 이후로 난독증에 걸린 주중원과 불의의 사고를 겪고 깨어난 후에 귀신을 볼 수 있는 태공실의 이야기이다. 주중원에게 15년 전 납치 사건은 끔찍한 기억이다. 범인은 주중원을 텅 빈 폐공장에 감금하고 그에게 30분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읽게 한다(<장면 1>).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알려 모친의 유품을 몸값으로 받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내용이다. 주중원은 책 속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야기가 끝나면 본인이 죽을 차례가 될 것만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장면 1>



<장면 2>

설상가상으로 주중원은 납치에서 풀려나기 전에 그의 여자친구인 차희주(한보름 분)가 납치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임을 알게 된다. 첫사랑인 그녀를 믿고 사랑했던 만큼 그에게 배신감은 배가 되었다. 그러나 주중원은 차희주를 원망하지도 못하는데, 주중원을 풀어주고 몸값을 받은 공범이 차희주를 인질로 잡아 도주하던 중 차희주가 교통사고로 즉사하기 때문

이다. ‘끔찍한 살인광으로 추측되는 미치광이’와도 같은 범인에게 본인은 텅 빈 폐공장에 감금되고, 비록 납치 사건의 공범이기 했어도 첫사랑인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 사건은 주중원에게 거대한 외상사건²⁵⁾이 될 수밖에 없었다(<장면 2>). 글자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악몽 같은 시간과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에게 납치 사건에 대한 증후가 남는 건 당연했다. 이 기억은 주중원의 무의식에 남아 유사한 상황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그의 감각·지배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주중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난독증을 겪게 된다²⁶⁾.

주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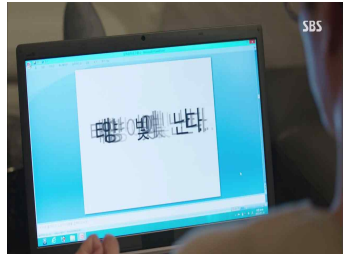
난 글이 안 읽어져. 그렇게 됐어. 그때 그 사건이 후로 그렇게 됐어. 간헐 있는 동안 계속 책을 읽게 했어. 거기서 읽게 했던 책이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내용이었어. 한 줄 한 줄 읽으며 다음에는 누가 죽을까, 그 다음엔 또 누가 죽을까. 다 죽고 책이 끝나면 마지막에 죽는 게 내가 될 것 같았어. 그때 이후로 글을 보면 토할 것 같아. 글을 읽는 게 무서워. (6화)

25)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은 실제적·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한다.”(이상현,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가법연구』 제9집 1호, 한국국가법학회, 2013, 191면.)

26)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김성찬 원장은 “난독증이란 뇌 회로에 생긴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라고 설명한다(이우중, 「난독증, 그들에게 글자는 뜻을 알 수 없는 기호」, 『인체기행』, 2014.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7558&cid=58946&categoryId=58977>, 2018.9.8.검색). 엄밀한 의미에서 주중원이 글을 읽지 못하는 정확한 원인은 과거 끔찍한 기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지 난독증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작품에서 제시된 대로 주중원이 시각적 정신정리 병리 현상으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주제라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심인성 시각 장애의 한 유형으로 ‘히스테리성 실명’을 언급하며, 히스테리성 실명자들의 눈에 자극을 주면 의식적 차원에서는 반응이 없지만, 다양한 정서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히스테리성 실명자들은 의식이 관여하는 한에서만 눈이 먼 것이며, 무의식 상태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암시로 인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궁할만한 근거가 있는 심리적인 상태의 표현이라는 것이다.²⁷⁾

이에 기대다면 주중원은 일종의 ‘히스테리성 실명’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장면 3>). 주중원은 차희주가 공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족을 비롯해 사건 담당형사에게조차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형사는 차희주가 주중원과 함께 납치되었고 그녀가 그 대



〈장면 3〉

신 희생되어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주중원이 살아가면서 차희주를 잊을 수 없고, 본인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클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차희주가 공범임을 알고 있는 주중원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자체가 본인 탓이 아니라는 몸부림으로 보일까 봐 끔찍해한다. 게다가 아버지가 범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희주가 죽은 것이라 믿으며 납치 사건 이후 아버지와 날 선 관계를 지속한다. 만약 차희주가 살아있었다면 주중원은 끝까지 그녀를 찾아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단지 미워하기만 했겠지만, 자기 눈앞에서 그녀가 죽는 것을 본 그는 그녀도 공범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주중원의 심리상태가 그를 ‘히스테리성 실명

27)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시각의 심인성 장애에 관한 정신분석적 견해」,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열린책들, 2007, 84-85면.

자로 만들었고, 납치 사건 이후 주중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본인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철저히 ‘계산적인 인간²⁸⁾’으로 변모한다.

죽은 아내가 여전히 곁에 있음을 확신하며 킹덤 골프장 부지 매입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인 남편 앞에서 주중원은 아내의 분신인 꽃을 망설임 없이 잘라버리고도 일말의 미안한 감정조차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집주인에게 돈벼락을 맞았다며 박수를 쳐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아내의 의견을 따를 필요 없이 살아있는 자식들의 생각대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종용할 뿐이다. 또한 그는 쇼핑몰 ‘킹덤’ 모델인 태이령(김유리 분)과 축구선수 유혜성(진이한 분)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을 투자한 만큼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하지만 결혼 직전에 유혜성이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죽은 애인의 진심을 알고 태이령과의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주중원이 기대한 광고효과는 수포로 돌아간다. 주중원은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일을 망쳐버린 유혜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패할 확률은 더 높지만 꿈꿔왔던 대로 축구선수의 길을 선택하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은 유혜성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가치를 판단하는 주중원의 세상 밖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주중원이 속해있고 거느리고 있는 세상은 쇼핑몰 ‘킹덤’이다. 주중원은 킹덤 중역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에 새로 세울 킹덤을 “전면을 거울로 만들어서 눈부시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지시하며, 자기의 세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킹덤의 모든 것을 어떠한 상처나 부정성이 없이 최적화된 매끄러운 것들로만 채운다.²⁹⁾ 뿐만 아니라 그는 킹덤 쇼핑몰 실적에 따라 점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심지어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28) “거대한 복합쇼핑몰 ‘킹덤’의 사장. 인색하고 야박하고, 계산적인 인간. 얼마짜리, 그 정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비싼 거, 그건 싼 거, 계산기가 입에 붙어 있다.”(주중원 인물 소개, <주군의 태양> 공식 홈페이지 참고. <http://programs.sbs.co.kr/drama/juguntaeyang/cast/52858>, 2018.9.7.검색).

29) 한병철, 이재영 옮김, 『아름다움의 구원』, 문학과지성사, 2016, 9-39면.

아이들이 소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 한다. “귀신보다 무서운 거인”인 경쟁사 ‘자이언트몰이 킹덤의 1.5배로 세워지는 것을 망원경으로 수시로 관찰하고, 자이언트몰에 킹덤의 매출우수점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자이언트몰이 세워진 후에는 오로지 자이언트몰과의 매출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칠 뿐이다.

주중원은 스스로 구축해놓은 세계 안에 누군가가 합류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같은 행동은 상대방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알고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조차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점점 더 피부, 감성, 두뇌에 외닿는 정서적 자극을 의식적으로 정교화할 수 없”는 “자폐적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결속을 거부하게 되고 점차 공감능력은 상실된다. ‘결속이 아닌 ‘접속된 신체들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정교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 없다.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느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 사회는 심리영역을 병리적으로 변화시킨다.³⁰⁾ 타인이 자신의 돈과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하는 주중원은 대외적인 약혼자에게도 자신의 신체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계속 달라붙으며 자신의 몸을 만지기 위해 다가오는 태공실과도 늘상 거리를 유지하며³¹⁾ 본인이 그녀의 세계에 깊숙이 팔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주중원이 납치당했을 때 몸값으로 준 어머니의 목걸이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후에야 비로소 태공실은 그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2.2. 비가시적 세계로 확장된 시선

30)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정유리 옮김,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정보노동의 정신병리』, 난장, 2013, 178-183면.

31) “나랑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지만, 내 눈엔 잘 띄지 않고,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면 서, 다른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런 자리로 찾아보세요.”(4회 중 주중원의 대사.)

태공실은 불의의 사고로 3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 태공실이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의 영혼은 본인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의식을 찾은 그녀는 귀신과 소통하며 아무나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³²⁾. 태공실은 알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귀신과 소통하며 현실과 죽음의 경계에서 “산 채로 죽음에 받을 담”고 있다³³⁾.

태공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미친 백수”이거나 잃어버린 신발 대신 “각티슈 끼고 다니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는 미친 여자”와 같은 나와 다른 이방인이다. 태공실은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들 눈에는 게으름 피우며 일을 하지 않는 해고대상 1순위인 직원이다. 태공실과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꼬마들조차도 태공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 전 태공실은 소위 명문대학 출신으로 뛰어난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운동대회에서 수상경력도 있고, 사교성도 좋아서 ‘큰태양’이라 불리며 동창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들었다.

그러나 태공실은 타인 또는 사회가 자신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주변인으로서의 주체가 형성되었다.³⁴⁾ 주중원을 비롯해서 현실 세

32) 라캉에 의하면 귀신은 실재계에 속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귀신은 “구조적으로 명증시킬 수 없”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표상 불가능함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실재”의 위상을 차지한다. (맹정현, 『리비돌로지』, 문학과지성사, 2013, 266면.)

33) “어릴 적 낙천적이고, 잘 웃고, 뭐든 시원시원 잘 해냈다. 누구나 사랑하는 아이였다. 별명으로 불린 ‘태양’처럼 딱 그렇게 환했다.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고, 깨어난 후, 그녀에게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무섭고 섬뜩한 것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는 것들, 그녀는 귀신을 본다.”(태공실 인물 소개. <주군의 태양> 공식 홈페이지 참고. http://programs.sbs.co.kr/drama/juguntaeyang/cast/52858#0_1, 2018. 9.7.검색).

34) “대부분의 이방인·신·괴물(다양한 유형과 도깨비, 분신들을 포함하는)은 인간심리의 심연에 존재하는 균열의 증거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친숙한 것과 낯선 것, 같은 것과 다른 것 사이에서 어떻게 분열되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1) 낯선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든가 (2) 그것들을 배타적으로 배제하여 아웃사이더로 치부 하면서 거부하는 것

계의 사람들은 ‘사고 후 태공실’을 주변인으로 몰아세운다. 태공실은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살기 위해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해봤지만, 불쑥불쑥 나타나는 귀신들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고시원 옥탑방에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귀신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태공실은 못사람들에게 가까이 두기에 끔찍한 사람이다. 영매사(이용녀 분)는 태공실이 귀신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녀가 환하게 빛이 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찾아와 부탁도 하고 하소연도 하는 것이라 일러준다. 그렇다고 태공실이 현실 세계에서 이방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공실 언제 눈이 마주치고 날 따라올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무서워.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데가 세상 어디든 딱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1회)

태공실 제발 가. 따라오지 마. 귀찮게 하지 마요. 당신들 때문에 나만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 나 좀 살게 내버려 둬. (1회)

태공실 깨어났는데, 이렇게 이상해져 버려서 언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고시텔 방에 처박혀서 숨어 사는 것도 너무 한심하고, 나는 귀신도 무섭지만, 귀신처럼 사는 내가 더 무서웠어요. (4회)

주중원 애 엄만 죽은 아이가 안 보이잖아. 네가 죽은 아이를 본다 고 하면 그 사람한테 넌 아주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나서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이다. 대개의 경우 인간들은 후자를 선택해왔다.” (리처드 커니, 이지영 옮김, 『이방인·신·괴물』, 개마고원, 2010, 15면.)

(12회)

주성란 너 들러붙어서 괜히 회주 떠올리게 하는 게 더 괴롭게 하는 거니까 떨어져.

태공실 고모님 제가 회주씨에 대해 예기를 해주면 끔찍하게 하는 거예요?

주성란 너 이제 말이 통하는구나. 그래, 끔찍한 거니까 떨어져.
(12회)

대부분의 귀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공실을 찾아가 자신들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연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태공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태공실의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까지 무작정 그녀 곁에 맴돌기 때문에 그녀는 일상적



〈장면 4〉

인 생활이 불가능하다(〈장면 4〉). 그렇다고 귀신들이 상한가 칠 주식 정보나 로또 당첨 번호처럼 태공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요구사항만을 말할 뿐이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죽은 아내 귀신 때문에 신발을 잃어버린 태공실은 각티슈로 신발을 대신하여 못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 소년 귀신은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마다 불쑥 나타나고, 시아버지 귀신은 본인의 제삿날을 잊어버린 며느리에게 오늘이 제사임을 알려달라고 하고, 할머니 귀신은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한다. 한강에서 만난 육상선수 귀신은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해보고 싶다고 조르고, 동네 슈퍼마켓 할머니 귀신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옆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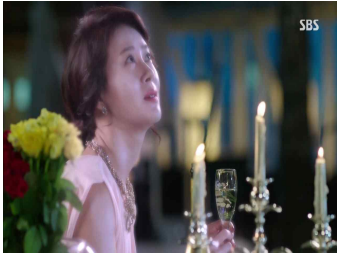
편의점이 생겨서 속상하다고 밤새 꾸념한다. 태공실은 육상선수 귀신의 소원을 들어준 후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받고 할머니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밤잠을 설친다. 더 나아가 피아니스트 루이장(정찬 분)은 죽은 아내 귀신이 태공실의 몸에 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태공실은 자신의 삶이 다른 영혼에 의해 가로채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뽕소니로 죽은 아이의 진범을 찾다가 죽을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태공실을 바라보는 수상쩍은 시선들은 모두 그녀가 감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귀신들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수치심은 오롯이 태공실의 몫이다.

대부분 귀신들은 현실 세계의 삶이 끝났지만 이루지 못한 한이 남아 이승에 머무르며 태공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머물러 현실 세계에서는 표출하지 못했던 욕망을 소환하는 영혼도 있다. “환상은 욕망에 관한 문학으로서 부재와 상실로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³⁵⁾하는 것이라는 잭슨의 의견에 따르면, 귀신은 현실 세계에서는 비이성적이며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들이 가시화되면서 은폐되고 억압되었던 욕망을 소환한다.

간간한 시어머니, 술주정꾼 남편, 철없이 반항하며 대들기만 하는 딸을 가족으로 둔 강길자(김희정 분)는 혼수상태인 채 병원에 있다. 그녀는 킹덤 호텔 숙박이벤트 당첨자 중 한 명으로 호텔에서 매일 살고 싶을 만큼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몸은 혼수상태로 병원에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호텔에서 머물러 있다. 강길자의 영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고 스테이크를 먹고 호텔 로비에서 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부리기도 한다. 태공실이 강길자의 영혼에게 계속 유령으로 있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 가족들이 기다리는 현실로 빨리 돌아가라고

35) 로지 잭슨, 앞의 책, 12면.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현실로 돌아가길 거부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머느리, 아내, 엄마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했고, 그들을 위해 자신은 양보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도 아닌 ‘유령’이 되어 힘겹고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한여름 밤의 꿈”과도 같은 시간을 누린다(<장면 5>).



<장면 5>



<장면 6>

이처럼 귀신들과 공존하고 있는 태공실이 속해있는 세계는 주중원이 속한 세계와 전혀 다르다.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주중원의 세계와 정반대로 그녀의 세계는 언제나 귀찮게 달라붙고 무섭고 섬뜩한 것들로 가득한 세계이다. 매끈하게 반질거리는 고가의 대리석으로 뒤덮인 주중원의 세계 즉 킹덤과 대조적으로 그녀가 머무는 고시원 옥탑방은 귀신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십자가, 마늘, 부적 등이 너저분하게 걸려 있다(<장면 6>). 주중원과 첫 만남 후 그와 함께 있으면 귀신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태공실은 기꺼이 이방인의 위치에 자리한다. 그녀는 귀신들의 세계를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서 주중원이 그녀에게 ‘꺼져’라는 말을 수없이 해도 그녀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방공호인 주중원에게 다가간다. 그렇기에 태공실은 주중원의 매끄러운 세계에 침범하는 이방인이다.

3. 양립된 세계의 공존

3.1. 탈근대적 자폐증에서 탈피

주중원이 태공실을 처음 만난 건 킹덤 골프장 부지 매입 계약서에 동의를 받기 위해 찾아간 집에서 죽은 아내의 분신을 쫓을 잘라버린 날이다. 우연히 주중원의 차를 타게 된 태공실은 그녀와 그의 손이 서로 닿는 순간 찌릿함을 느끼고, 주중원의 몸에 자기의 신체가 닿으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주중원에게 안전한 ‘방공호’라며 시도 때도 없이 매달리는 태공실은 낯선 것이며, 이방인이고,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타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는 대상이다. 벼락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태공실은 피할 수 없을 거라던 골프장 부지의 죽은 아내가 했던 말처럼, 주중원과 태공실의 찌릿한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 되고, 태공실은 꾸준히 주중원의 세계에 침입해 잔잔하던 그의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김귀도 절대로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저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풀리지도 않겠죠. (10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은 무섭지 않다며 태공실을 밀쳐내던 주중원은 태공실에게 빙의한 차희주를 만난 뒤 태공실에게 100억 원의 가치를 부여한다. 태공실이 죽은 차희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치 당시 몸값으로 진범에게 준 목걸이를 찾을 수 있으리란 계산이 선 것이다.³⁶⁾ 잃어버린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것 말고도 주중원은 자신의 세계인 킹덤의 이익을

36) “의미 없는 스킨십만 주고받는 관계, 내가 저 여자랑? 아니야, 돈만 생각해. 저 여자는 돈을 찾아 줄 거야. 저 여자는 백 억짜리 레이더야, 백억. 레이더가 얼마나 비싼데.”(4회 중 주중원의 대사.)

위해 ‘백 억짜리 레이더’를 활용한다. 태공실이 상해유통 왕회장의 죽은 손자가 그리워하던 첫사랑과 재회하는데 일조해서 킹덤은 상해유통과 협력하게 되었고, 킹덤 호텔 수영장에 나타난 물귀신이었던 강길자를 설득해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로 돌려보내서 킹덤 호텔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한다.

킹덤이라는 단단히 밀폐된 세계에서 갇혀 살던 주중원에게 태공실이라는 침입자가 나타나 고요하던 그의 세계를 소란스럽게 만들며 무장해제하기 시작한다. 주중원은 이성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태공실의 모습을 봐도 아무렇지 않게 된다. 여전히 이성적으로는 손익계산을 하고 있지만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성과 감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킹덤에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태공실과 함께 귀신이 해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킹덤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사인 자이언트 회장과 아들의 오해를 풀어준다. 무장 탈영병에게는 그가 평소 아끼던 안락사시킨 군견에 대해 마치 자기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태공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탈영병의 자살을 막는다.

“유령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저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에 거주”³⁷⁾하므로, 살아남은 사람은 상처의 흔적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차희주가 주중원에게 저주라고 하지만, 태공실이 보기에 차희주는 주중원에게 ‘상처’이다.

- | | |
|------------|--|
| 태공실 | 강우씨가 회주씨에 대해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혹시 그거 물어봤어요? |
| 주중원 | 알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뒀어. |
| 태공실 |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
| 태공실 |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감당해 볼래? (중략) 감당할 만해? 못하겠지? 감당 못하는 건 건드리지 마. |

37)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 사랑과 죽음 그리고 예술』, 문학동네, 2014, 179면.

태공실 건드릴 거예요. 그게 내가 제일 잘 하는 거니까. 그냥 놔 두지 말고 알아봐요. 15년 동안 글씨도 못 읽고 그게 뭐예요, 이제 글씨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섭다고 피하는 거 그거 창피하잖아요. (12회)

주중원은 죽은 차희주를 애도하며 떠나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가가야 하는데, 주중원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살아서 홀로 남은 사람은 상실의 슬픔, 슬픔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차희주의 죽음을 상징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중원에게 그녀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걸이를 가지고 간 납치 사건의 공범인 “나쁜 년”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차희주도 진범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고 죽어서 안 됐다는 연민과 동시에 차희주가 교통사고로 죽사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듣지 못한 억울함, 주중원은 이와 같은 이중적 감정만을 가질 뿐이다.

주중원의 아버지가 찾은 증거와 비서실장인 김귀도(최정우 분)의 증언을 통해, 납치 사건 때 죽은 주중원의 첫사랑은 차희주와 쌍둥이였던 한나 브라운이었고, 납치 사건의 진범은 죽은 한나 브라운의 신분으로 살고 있던 차희주였음이 밝혀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중원은 차희주가 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주중원 난 알고 싶은 거 다 알았어. 공범을 알고 싶었는데, 누군지 알았어. 지켜주고 싶다더니, 쌍둥이 언니라서 그런 거였네.

강 우 그게 끝입니까? 차희주씨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미웠어도 어쩌다 그런 일은 벌이게 됐는지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회)

프로이트는 슬픔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³⁸⁾이라 한다. 애도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다. 라캉의 “두 개의 죽음”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말 그대로 두 번 죽어야 한다. “실제(생물학적) 죽음과 그 죽음을 상징화하는 것”³⁹⁾ 즉, 유기체적인 일차적 죽음과 죽었다는 것을 표상하는 이차적 죽음이 그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대상이 잊히는 것이 아니라, 자아 본인이 노동이라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거쳐야만 애도가 가능하다.⁴⁰⁾

한 나 왜 이제 와서 이래? 넌 네 상처 때문에, 한 번도 죽은 애가 왜 그렇게 된 건지, 알고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잖아. 그냥 알던 대로 두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주중원 정말로 그 애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한 나 그래. 너 때문에 죽었어. (15회)

차희주 중원아,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아픔이 아니었음 좋겠어.

주중원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미워해서 미안해. (15회)

주중원은 첫사랑이었던 차희주가 죽은 이유가 진범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고 난 후에야 납치 사건의 진실을 바로 마주하게 되고 차희주를 온전히 보내준다. 차희주가 죽어서도 지켜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쌍둥이인 진범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주중원은 차희주라는 상처를 그저 덮어둔 채 납치 당시의 기억으로 무서워서 글도 읽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지만, 결국 주중원은 차희주라는 결여를 이끌어냄으로

38)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4, 244면.

39)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승고한 대상』, 새물결, 2013, 219면.

40) 맹정현, 『멜랑콜리의 검은 마술』, 책담, 2015, 50면.

써 이를 매개로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주중원은 앞으로의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차희주를 기억하고 태공실과 성숙한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출구도 없는 밀폐된 자신만의 세계에서 소외된 채 살아온 주중원이 진정으로 자폐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타자의 부채를 짊어진 주체의 위치를 바꾸는 일”⁴¹⁾뿐이다.

3.2. 경계 너머의 세계와 조우

전술했듯이 태공실이 귀신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유는 사고 후 의식불명인 채 3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그녀의 영혼이 귀신으로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태공실의 영혼은 자기가 이승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마음들을 들어주겠다고 다른 영혼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때, 태공실에게 귀신은 혐오스러운 것, 불편하게 하는 것, 심지어 나를 위협하는 대상이었다.

태공실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녀의 일상에 원하지 않는 귀신들이 나오고 자기에게 귀찮게 달라붙는 게 싫었다. 그녀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 무작정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귀신들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으며 그들을 피했다.

태공실 귀찮게 달라붙는 거 참, 싫죠. 그냥 눈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무섭게 따라오고, 나랑 상관없는 부탁이나 하고,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싫은지 알아요. (1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공실이 귀신들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서 피한다 하더라도, 막상 그녀의 눈에 귀신이 보이면 그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비통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

41) 맹정현, 『리비돌로지』, 283면.

으로 큰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준다는 사실에 푹어지고 있던 고통의 일부를 내려놓는다. 죽은 사람에게는 이승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태공실은 자신이 귀신을 보게 된 이유를 알기 전에도 무서웠지만 귀를 기울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경청은 수동적 행동이 아니다. 특별한 능동성이 경청의 특징이다. 나는 우선 타자를 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타자의 다름을 긍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를 경청한다. 경청은 선사하는 것, 주는 것, 선물이다. 경청은 타자가 말을 수동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경청은 말하기에 선행한다. (중략) 경청은 타자를 말하기로 초대하고, 타자가 그의 다름을 드러내도록 풀어준다. 경청은 타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공명의 공간이다. 그래서 경청은 치유할 수 있다.⁴²⁾

본인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통보를 해야 했던 유혜성의 죽은 애인은 전광판에 나온 유혜성을 바라보며, 죽어서도 그를 잊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에 태공실은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유혜성에게 전해지도록 돕는다.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유치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버림받은 채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른들 대신 사과를 하고 안아준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죽게 된 아내를 위해서는 뻔뻔한 남편의 진실을 밝히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감수한다. 유쾌한 일에는 누구나 쉽게 동조할 수 있다. 그래서 불쾌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은 당사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던 귀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원통한 하소연을 들

42) 한병철, 이재영 옮김, 『타자의 추방』, 문학과지성사, 2017. 108-109면.

어주기로 약속했던 태공실이 그들에게는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며 선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은 당연하다.

태공실 깨어나서 갑자기 그들을 보고 듣는 내가 너무 싫고 무섭기만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빛나는 태양이 되어 주기로 약속한 거였으니까. 그걸 지키고 있는 내가 싫지도 무섭지도 않아요. (17회)

이때 주목할 것은 태공실이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귀신의 형상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태공실이 살고 있는 고시텔의 404호에 머무는 할머니 귀신은 태공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가 자기를 봐줄 때까지 계속 나타난다. 할머니 귀신을 피할 수 없던 태공실은 404호에서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자(<장면 7>) 겁에 질려 자신의 방으로 도망을 간다(<장면 8>). 태공실은 할머니 귀신이 자기 방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며, 결국 방에 들어와 자기를 지켜보던 할머니 귀신과 마주하게 된다. 태공실이 할머니 귀신을 마주하고 할머니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은 순간, 할머니 귀신은 무섭고 기괴한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로 변한다(<장면 9>). 태공실은 할머니 귀신의 부탁대로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에게 통



<장면 7>



<장면 8>



<장면 9>



<장면 10>

장을 전달하고 생전에 하지 못한 말까지 전한다. 더 이상 태공실에게 할머니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므로, 태공실은 어렵지 않게 할머니 귀신을 바라볼 수 있다<장면 10>. 그러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할머니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변한 후 사라진다<장면 11>.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속앓이를 하던 할머니는 태공실 덕분에 자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귀신들의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장면 11>

얼굴은 “타자성, 즉 거리를 요구하는 타자의 다름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⁴³⁾이다.

태공실은 단지 귀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이유만으로 그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주중원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았으면 돼.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태공실 저는 다 보여서 알아요. 은설이가 너무 슬퍼해요. (2회)

태공실 알고 싶지 않다고 우겨도 눈에 보이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3회)

태공실 나는 자꾸 보이고 들려서 계속 휘둘러요. 그게 너무 싫은데 이게 나예요. (16회)

43) 한병철, 김태환 옮김,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지성사, 2015, 42면.

태공실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남아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비록 태공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녀는 상상을 통해 그들의 처지에 자신을 놓고 그들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들과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차희주를 떠나보내는 주중원 대신 그녀가 눈물을 흘린 것은 주중원과 차희주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무도 어루만지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주중원의 상처가 비로소 치료됐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공실의 마음가짐에 따라 귀신의 얼굴의 형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태공실 본인이 한 발 물러나서 귀신들이 자기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 론

환상서사는 초자연적인 가공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다룬다. 간단히 말해 환상서사는 욕망에 관한 문학이다.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현재의 삶이 정해진 운명대로 어떠한 굴곡도 없이 예측 가능한 사건들만 일어나서 꿈과 같은 일들을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TV 드라마 <주군의 태양>은 시각적 정신병리 현상을 겪는 인물들 즉, 난독증과 환시를 겪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난독증을 겪게 된 주중원은 타인과의 연대감 없이 신체적 접근을 스스로 차단하고, 모든 것을 수치화하며 강박적 증세를 지닌다. 다른 세계와 소통이 불가능하고 밀폐된 자폐적인 그의 세계에 태공실이라는 낯선

자가 침입하는데 그녀는 귀신을 볼 수 있고 귀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녀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주중원의 세계에 투입하는 이방인에 위치되지만 결국 끊임없는 그녀의 접촉으로 단단한 세계가 무너지고 자폐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태공실의 세계는 섬뜩한 귀신들이 존재한다. 섬뜩하고 무서워서 태공실은 그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점차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은둔시켰던 자신만의 세계를 허문다.

결국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은 채 각자의 세계 속에서 간혀 있던 태공실과 주중원은 벽을 깨고 나와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공존한다.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영혼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위안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점차 타인과의 연대감, 유대감이 퇴색하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타인을 마주 바라보고 그들과 동감(同感)하는 것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군의 태양>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주군의 태양> 1~17화 방영분.

<주군의 태양> 공식 홈페이지 (<http://programs.sbs.co.kr/drama/juguntaeyang/about/5285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대한간호학회 편,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 (<https://terms.naver.com/list.nhn?cid=60408&categoryId=55558>)

2. 단행본

-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 사랑과 죽음 그리고 예술』, 문학동네, 2014.
-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5. 환상물』, 이론과실천, 2016.
-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2.
- 리처드 커니, 이지영 옮김, 『이방인.신.괴물』, 개마고원, 2010.
- 맹정현, 『리비돌로지』, 문학과지성사, 2013.
- _____, 『멜랑콜리의 검은 미술』, 책담, 2015.
-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열린책들, 2007
- _____, 윤희기·박찬부 옮김,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4.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츠베탕 토도로프, 이기우 옮김, 『덧없는 행복.루소론,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1996.
-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정유리 옮김,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정보노동의 정신병리』, 난장, 2013.
- 캐스린 흄,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새미, 2006.
- 한병철, 김태환 옮김,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지성사, 2015.
- _____, 이재영 옮김, 『아름다움의 구원』, 문학과지성사, 2016.
- _____, 이재영 옮김, 『타자의 추방』, 문학과지성사, 2017.

3. 논문 및 기타

- 강선애, 「오늘 첫방 ‘주군의 태양’, ‘너목들 열풍’ 이를 관전 포인트 넷」, 『SBS E! 연예뉴스』, 2013.8.7. (http://sbsfun.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44639
60, 2018.9.8.검색).
- 김용욱·우정한·신재한, 「난독증 연구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16권 2호,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5.

- 이상현,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가법연구』 제9집 1호, 한국국가법학회, 2013.
- 이여진, 「TV 판타지 드라마의 장르혼합 양상 연구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주군의 태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우종, 「난독증, 그들에게 글자는 뜻을 알 수 없는 기호」, 『인체기행』, 2014.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7558&cid=58946&categoryId=58977>, 2018.9.8. 검색)
- 이윤녕·이동현, 「<난독증 집중취재> 글자에 갇힌 아이들...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EBS 뉴스』, 2014.4.14,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210727/N>, 2018.9.7. 검색).
- 정시우, 「step by staff(6) ‘주군의 태양’ 특수분장사 김봉천, “진짜 같은 가짜를 향한 열정”」, 『텐아시아』, 2013.10.08.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71816>, 2018.9.8. 검색).
- 조예원, 「공포영상의 특수분장 사례연구 -주군의 태양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희웅, 「귀신의 정체」,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최보란, 「주군의 태양, 오싹한 귀신비밀 “CG? 분장이 80%”」, 『스타뉴스』, 2013.8.5. (<http://star.mt.co.kr/stview.php?no=2013080516451302924&type=3>, 2018.9.8.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Visual Psychopathological
Embodiment Appearing in Fantasy
— Mainly on the basis of TV drama <Jugunui Taeyang>

Kim Minyeong

As materials with diverse fantasy are recently managed in TV drama, they tend to increase quantitatively. Especially, ghost narration mainly based on vindictive spirit-vengeance has begun to be in new variation without being limited to horror genre since 2010. This article intends to investigate the aspect where reconstructed desire is revealed as the persons with antipodal visual psychopathology change their position in ambivalent world with the subject, rocomic horror TV drama <Jugunui Taeyang>.

Suffering dyslexia due to syndrome of kidnapping case in childhood, Ju Jungwon is in the state of a kind of hysteric blindness. Rejecting to let anybody join the world personally constructed by him, 'Kingdom', he lives computatively, only viewing what is visible to him. On the contrary, Tae Gongsil whose eyes are extended even to invisible world communicates with ghost on the borderline of reality and death. Since her world is full of scary and weird ghosts, she is excluded by most people as a stranger.

Since the first encounter when they found that ghost disappears if Tae Gong Sil contacts the body of Ju Jungwon, she entered his closed world. As a result, Ju Jungwon faces the kidnapping case with Cha Heeju who remains with scar and escapes from autistic world. Attentively listening to the appeal of ghost, Tae Gongsil sympathizes with their story. As those who are in the ambivalent world begin to recognize, accept and sympathize with existence that is different from them, they destroy their own world. <Jugunui

Taeyang> seems to have positive value in that it makes crack in the belief of time where solidarity and fellowship is discolored and fades away.

Key Words: Dyslexia, Fantasy, Ghost Narration, Visual Hallucination, Visual Psychopathological,
<*Jugunui Taeyang*>

접 수 일: 2018년 8월 7일

심사기간: 2018년 8월 11일 - 8월 25일

게재결정: 2018년 9월 7일